

# 성경 말씀의 대의(大義)는 영생입니다

##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

### 마태복음 12장 28절의 기록은 예수가 성령을 받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말씀이다

성경 말씀의 대의는 요한복음 5장 39절의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 것은 그 속에 영생이 있음이라”라는 구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영생이 없다면 성경을 상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대의는 영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생의 하나님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하나님과 아담과 해와’가 에덴동산에서 살았다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덴동산은 하늘나라 천당을 말합니다. 천당은 하나님의 집이므로 영생의 집인 것입니다. 따라서 영생하는 존재만 천국이 되는 하늘나라에서 사는 것이 영생의 신이 아니면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마귀가 하나님의 집을 파괴한 것입니다. 마귀가 아담과 해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주체영인 하나님의 영을 마귀 옥에다가 뒤 놓고 마귀가 주체영이 된 것을 가리켜 선악과를 먹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바로 마귀의 영이며, 사망의 영입니다.

#### 이슬성신은 죽음의 물질인 녹시트론을 파괴하는 생명의 물질 즉 바이오트론입니다

성경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해와 하나님이 죽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전부 영적 말씀이라고 성경에 씌어

있습니다. 영적 말씀이니까 영입니다. 선악과는 영은 영인데 죽이는 영이라는 말씀입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녹시트론이라고 합니다. 반면 살리는 영은 생명과일이며 바로 바이오트론이라고 말합니다.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생명체 속에는 있습니다. 사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있는 풀이라든지 살아 있는 나무속에도 바이오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바이오트론에 의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고 녹시트론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저히 녹시트론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고로 녹시트론을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생명의 영인 바이오트론을 만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이 바이오트론은 바이오트론인데 바로 녹시트론을 파괴시킬 수 있는, 녹시트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성신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슬성신은 바로 마귀인 녹시트론을 파괴할 수 있는 생명의 영입니다. 이 사람이 녹시트론을 파괴할 수 있는 바이오트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슬성신을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는 “말세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리니 피와 불과 연기기둥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세에 이슬성신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지금 승리제단에서 이슬성신이 핏 색으로도 내리고 불 색으로도 내리고 이제 그대로 문개구름과 같은 그러한 연기와 같은 색으로도 내리고



구세주 조희성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에는 안보입니다. 사람 자체가 주체영이 마귀의 영인고로 안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카메라 사진으로 찍으면 찍혀 나오는 이유는 카메라 렌즈는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는 그러한 렌즈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되는 이슬성신이 찍혀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나오면 마귀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승리자 나타나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목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잠자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리리라”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

습니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기독교는 모래 위에 세운 집,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다

예수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줄 때에 ‘공중하늘에서 소리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소리가 하늘에서 들린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 꼭대기에는 하나님이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례 요한을 따라 다니는 무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지만 많은 유대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미친놈이라며 유대나라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는 로마에 가서 교리를 전파하게 되었는데 예수가 자기가 구세주라고 전파하니까 외국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고로 진짜 구세주인줄로 알았던 것입니다.

#### 예수는 마귀의 힘으로 미친 사람들과 고쳤다(마태 12:28)

예수는 미친 사람들을 많이 고쳤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가 말하기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나니라”하였습니다. 즉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는 것은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았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반대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자신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아들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바로 마귀의 종교에 불과한 것입니다.

#### 이슬성신을 받으면 영생한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쉽게 말하면 사람이 바로 나(아담)라는 의식을 이기고 승리의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주체의식이 되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승리자 구세주가 예배를 인도하면 승리자 구세주의 얼굴에서 이슬성신이 나오고 몸에서도 이슬성신이 나옵니다. 이것은 불경에 감로를 내리는 자가 바로 생미륵불이며 감로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고 씌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슬성신을 받아야 죽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불경이나 격암 유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승리제단에 매일 나와서 이 이슬성신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 [연재] 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 피의 통일

#### 천지개벽은 궁극적으로 인간개벽에 의해서

천지개벽은 궁극적으로 인간개벽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인간개벽이 곧 천지개벽이다. 인간개벽이 없는 천지개벽은 있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상에 불과하다.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문제는 인간의 정신개벽인 것이다. 이는 나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의암 손병희 선생은 “작은 것을 맑고 새롭게, 복잡한 것을 간단하고 깨끗하게 하기 의함이니 천지만물의 개벽은 공기로서 하고 인간 만사의 개벽은 정신으로써 하니 너의 정신이 곧 천지의 공기니라”했다. 또 “이제 그대들은 하지 못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먼저 각각 자기에게 본래 있는 정신을 개벽하면 만사의 개벽은 차례의 일이나라”하면서 의암은 인간의 정신개벽을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증산의 해원상생(解冤相生) 사상과 전선무악공사(全善無惡公事), 그리고 소태산의 개교표어(開教標語: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등은 모든 인간의

정신개벽을 무엇보다도 중요시한 사상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듯이 말이 아니고 실천에 의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진다. 금번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동의 절차 청문회에서도 보았듯이 말로는 아무리 정의구현 공정의 세상을 외쳐도 실생활에서 실천이 되지 못하면 누구도 따라 주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히 보고 깨닫게 되었다. 말과 주장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위는 공격 앞으로 해놓고 자신은 뒤에서 뒷받치고 명령하는 태도로 전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오직 자신의 끊임 없는 성찰과 올바른 뜻의 견지와 선하고 정의로운 각고의 노력을 통하지 않고서는 사회 정의와 도덕은 세울 수 없다.

자신의 올바른 말과 행실의 중요성은 예로부터 ‘겨 묻은 개가 툭 묻은 개를 나무란다’라는 불변의 격언으로 후대에 면면히 전해져 내려오고 있으며, 성경에서조차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 하나된 '세계'는 하나된 '나'로부터 천지개벽은 사람이 먼저 개벽되어야



제도 개선을 통한 인위적 개벽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동학혁명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라고 기록되고 있다. 여기서 주는 자신 속에 있는 양심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 없는 생활을 겨울의 서릿발처럼 냉엄히 실행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동학(東學)을 창시한 수운 선생도 “운수야 좋거니와 다향야 도덕이라. 너희라 무슨 팔자로 불로자득 한단말가. 하염없는 이것들이 날로 믿고 그러하나, 나는 도시 믿지 말고 한울님만 믿었으라. 네 몸에 모셨으니 사근

취원(捨近取遠)한단말가”라고 하면서 실천없는 자들을 단호히 꾸짖고 있다. 원불교의 창시자인 소태산 역시 공부 없이 도통(道通)을 꿈꾸는 무리, 노력 없이 성공을 바라는 무리, 준비없이 때만 기다리는 무리, 사술로 대도를 조종하는 무리, 모략으로 정의를 비방하는 무리들이 많음을 한탄하고 이들을 낫도깨비라 부르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더욱 밝아짐에 따라 이러한 무리는 발붙일 곳을 얻지 못하고 오직 인도정도의 요긴한 법만이 세상에 서게 될 것이니 이러한 세상을 일러 대

명천지(大明天地)라 한다고 하였다.

####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대명천지에 살고 있어

오늘날 정보취득의 용이와 접근의 편리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다. 때문에 말과 행동, 속과 겉이 다른 행동을 금방 알고 판단하는 초고속정보화시대, 대명천지에 살고 있는 까닭이다. 이젠 거짓말하고 이중적 태도를 취해서는 국민과 사회를 화합하고 통합할 수 없다.

진정한 하나된 세상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짓밟는 것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이 진정한 양심가로 거듭날 때만이 가능하다. 하나의 작은 악과 죄를 짓는 것을 살인을 위를 걷는 심정으로 조심하고 경계하는 마음이 갖춰질 때, 천지의 개벽이 시작될 수 있다. 개벽적 실천은 나와 너, 동지와 적의 이원적 대립을 전제하지 않고 오히려 둘을 상호의존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일원적 조화와 융화로 파악해야 한다. 그래서 상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와 나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것을 포용하고 극복함으로써 상호통일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진정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하고 보다 행복하고 자유로운 인간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모든 인간 개개인이 깨끗한 사회, 공정한 사회, 평화로운 사회, 대통합의 사회를 건설하겠다는 단호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만 한다. 자신의 정신의 변화없이 웃만 바뀌 입는다고 판사람일 수 없듯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바뀌어야 개벽된 세상이 구현될 수 있다. 그러려면 자기의 주장과 의견만 옳다고 해서 안 된다. 다름과 틀림의 차이를 극복하여 정답을 찾기 위한 상호존중과 배려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된 노력을 인내와 성심으로 다하여야 한다.

독재 권력에 맞서 자유의 증언을 계속해온 양심적인 행동가인 김지하 시인의 글이 이즈음에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준다.

-어디선가 아주 조그맣지만 선명하고 확고하게 소공동체가 그것을 선포하고 실천한다면, 그 불씨는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고 작은 샘물이 바다를 이루듯 흘러 번져서 모든 사람 모든 계층 모든 민족 모든 인종 모든 문화권과 전인류와 전지구 표면에 확대될 것이고, 전생태계 전체 우주 중생계에도 확장되어 생명 해방의 후천개벽이 이루어질 것이다. - \*

김주호 기자